

쇠고기 이력제

Hello TV 초대석 139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 편'



지난 3월 29일 CJ헬로비전 양천방송국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를 초대해 소속기관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대담 프로그램으로 지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최근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쇠고기 이력제도 소개, 축산물등급제도 소개, 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개 등이 있었다. 이 대담프로그램은 지난 4월 6일 케이블 TV(채널4)에서 4개 방송권역(경기부천, 인천, 서울 양천 은평 등)에서 방영되었으며 4월 중순부터는 전국난위로 재방송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농가 재입식 지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양돈과 한우의 안정된 재입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먼저 도내 양돈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종돈과 돼지정액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은 입식 준비를 마친 경기도 종축장(안성 광일농장 외 2곳)에 순종돈 및 임신 능력을 극대화 시킨 F1 종자돈을 25kg 기준 약 1천두를 분양할 방침이다. 또한 돼지인공수정센터 기능을 복원, 종모돈(수퇘지) 정액채취를 통해 생산된 고능력 돼지정액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두당 1만원에 배분하기로 했다. 젖소농가에는 고능력 젖소수정란을 공급해 젖소 확산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며 한우송아지 40두, 검정종료한우 25두를 구제역 피해가 큰 시·군 위주로 빠르면 4월 중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 인공수정용 정액을 인공수정사협회와 협의, 피해가 큰 농가위주로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여 축산업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지역

부여군, 축산소득 기반 조성사업 적극 지원

충남 부여군은 구제역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내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위해 축산소득 기반 조성사업에 적극 나선다. 지난 4월 6일 군에 따르면 관내 한우농가 DNA동일성 검사, 송아지 생산, 젖소농가 유절계선제 구입, 육우브랜드 육성, 양돈농가 모돈갱신, 온수고압세척기 설치, 양계·사슴·양상농가 등 총 14억9천5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냉품 브랜드 육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농장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축산농가의 새로운 도약과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전남도, 축산농가 운동장 구입자금 신청 1개월 연장

전라남도가 가축 번역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장 확보 등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운동장 부지 구입자금 지원 신청을 4월 말까지 1개월 연장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 운동장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육밀도 개선과 스트레스 방지 효과가 있으며 햇빛을 받지 못해 오는 면역력 약화에 따른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가축 사육에 필요하다. 최근 중앙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환경이 구제역 발생 원인이라고 발표되기도 했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실시한 '운동장을 이용한 송아지 설사병 관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감소로 송아지 설사 발생률은 23% 감소했고 치료 기간은 2배 단축, 폐사율은 3배 이상 개선됐다. 특히 햇볕에 의한 자외선 살균소독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축 운동장 확보는 질병 예방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축 운동장 확보를 위해 부지구입비로 축산농가에 1억원 이내에서 농어촌진흥기금과 전국 최초로 조성한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전액 장기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함평, 청정축산 실천 결의대회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함평군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가 청정축산 실천을 다짐했다. 함평군은 지난 4월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안병호 군수와 이재봉 한우협회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축산단체 관계자와 축산농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Clean)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소비확대를 이뤄내자는 의지를 내·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구제역·AI 농가 방역 활동'을 주제로 한 전남도청 관계자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청정축산 실천의지를 담은 3개항의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대구경북지역

예천군, 경북대학교 축산진흥 업무협약

경북 예천군은 지난 4월 6일 군청에서 지역축산 진흥을 위한 '예천군-경북대학교 간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현준 예천군수,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축산과 대학 학술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및 발전 방안 등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천군은 대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대학 학술 진흥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주지역

축산진흥원, 캐나다산 씨돼지 100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능력의 씨돼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캐나다산 씨돼지 100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농장을 방문, 씨돼지에 대한 개체능력과 외모, 혈통 검증 과정을 거치고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돼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씨돼지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 조건'에 적합한 씨돼지를 도입한다. 도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의해 (사)한국농축개발협회로부터 씨돼지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을 배정 받아 무관세로 추진하게 된다.도가 도입하는 씨돼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주무역관을 통해 외국산 씨돼지 가격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 씨돼지 선발과정을 거친 후 현지검역에 따른 질병 유무를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씨돼지는 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을 시 오는 9월 항공기 제주직송편을 이용, 제주에 도착하게 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용강계류장에서 15일간 검역 후 9월 축산진흥원 종돈장에 입식된다.